하루를 시작하며

선의 뜻 또는 성질 이해로 아동학대 등 예방

정 한 석
전 초등학교 교장·수필가

한라일보 칼럼 '아동학대 예방 원리 모색 및 지도방안 소고'(2021.6.30.)에서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나은 지도 방안으로 3가지를 설정하고 첫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있다. 이와 연계해서 본 제하의 칼럼에서는 둘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착하고 올발라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윤리학의 영역에 포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공동체의 좋은(행복한) 삶의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선을 이러한 도덕적인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의 인식에 대해 소크라테스(플라톤)는 '국가'에서 "태양은 보여지는 대상들에 대하여 보여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생성이 아니면서도 그러한 사물들에 대해 생성과 성장 그리고 영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네. 그러기에 인식되는 대상들이 인식됨이 선에 의해서 가능할 뿐더러 존재함과 실재성·본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역시 그것에 의해서라고 말해야 할 걸세. 또 가지적 영역에 있어서 최후로 그리고 가까스로 보게 되는 것은 선의 형상(形相)이며, 또 그것은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는 빛이라는 점에 상도(想到)되어야만 하네"라고 언급했다. 또 이와 관련되는 일화가 떠오른다. 즉, "지혜란 심오하여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지혜를 아버지라 하면 그와 닮은 아들 정도는 말할 수 있네. 지혜를 태양에 비유해 보면 보는 것으로 하여금 보다 잘 볼 수 있고 또 보여지는 것으로 하여금 보다 잘 보여질 수 있게 해 주는 이 태양과 닮은 성질을 뜻하네" 위 두 대목에서 선이란 지혜처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성질로서 태양에 비유해 봄으로써 보는 것과 보여지는 사물들에게 각각 볼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능력 부여 및 생성과 성장, 영양을 마련해 주는 태양의 성질과 닮은 의미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선을 태양에 비유해 가시적(可視的) 영역에서는 보는 것으로 하여금 보다 잘 볼 수 있고 보여지는 것으로 하여금 보다 잘 보여질 수 있게 해 주는 특성을, 또 가지적(可知的) 영역에서는 가르침에 의한 접근법을 적용해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보다 잘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침 받는 자로 하여금 보다 잘 가르침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특성을 창출해 각각 최후단계에 이르는, 또 다른 한편으로 태양에 비유되는 선을 각각 알게 되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최후단계에 이르는 선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검토해 보면 즉, 무지한 상태에 비유되는 선을 기점으로 미미한 반딧불빛 상태에 비유되는 선으로, 또 밤하늘의 별빛, 다시 밤하늘의 달빛, 더 나아가 낮 동안의 시야의 빛, 마지막으로 태양빛 상태에 비유되는 최선의 상태 선이다.

한편 특히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앎(이해)의 수준이 최선의 상태 선의 단계로 나아지면서 이에 비례해 지도자의 인격적 자질과 피지도자의 가르침 받고 싶어하는 의욕이 각각 함양되고 높아져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비행이 예방돼 시나브로 사라진다고 본다.

사설

추석연휴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하는 이유

최근 서귀포시 대정지역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지난 8일 갑자기 23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다음날 17명으로 줄어든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그렇다고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최대 고비로 다가오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추석 연휴 전후로 적용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도는 소규모(최소 인원)로 고향 방문을 유도하고, 출발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 귀가 후 증상 관찰과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도는 미검사자가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공·항만의 입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과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는 검사 대상 확대를 감안해 발열감시 인력과 검체 채취를 위한 워크스루 운영 인력도 추가 배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분명 추석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냐, 진정이냐를 가르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렇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의 불길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제주에는 불안요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섭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다. 지금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감염이다.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때문에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립공원 확대, 도의 '역주행' 행보 안된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일부 민원에다 도의 '역주행' 행보로 대폭 축소돼 환경보호 취지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간 지역주민 반발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상당폭 수정한 상태에서 도의 요청에 송악산까지 추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도가 송악산 제외 방침을 문화재보호구역 용역 탓이라지만 사유지매입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과 국립공원 지정보다 나은 선택인지 등을 얼마나 고심했는지 의문시된다.

한라일보 취재 결과 송악산의 국립공원 대상 제외는 도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용역절차중을 이유로 환경부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확대 작업이 2017년 도의 신청으로 시작된 이후 벌써 '누더기 수정안'이라 할 만큼 계속 축소되는 형국이다. 당초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추가에다 우도·추자, 송악산 곶자왈 등을 합쳐 총 610㎢였다가 우도·추자 등을 빼 303㎢으로, 올해 송악산까지 빼면서 289㎢로 줄었다. 원래 면적보다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된 것이다.

도가 추진하는 송악산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도립공원 지정도 쉽지않다는게 문제다. 전체의 45%인 사유지 매입에 나서야 하고, 전액 국비지원되는 국립공원과 달리 다른 안의 경우 큰 비용 부담을 지방비로 떠안아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용역도 '산넘어 산'이다. 관련 용역이 2023년 가서야 결과를 낼 예정인데, 내년 8월이면 유원지 해제로 건축물을 가능케 되는 상황이다. 용역속 주민상생방안이 수용될지도 미지수다.

국립공원 확대지정이 예견된 해당주민들의 반발에도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대폭 축소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도가 주민설득, 치밀한 용역추진 등엔 소홀하면서 면적 축소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송악선언'이 준비부족 또는 이행 의지부족으로 이해하기 십상인 현실이다.

열린마당

'돌봄서비스' 비대면 시대와 마주하다

양 일 경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이 어색한 시대가 됐다. 특히, 장년층이 혼자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방문 서비스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사건 사고 발생 시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제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한국전력의 전력량 사용 여부. SK텔레콤의 통신 데이터 사용 여부를 인공지능(AI)에 통합,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의 장소와 상관없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이다. 전력과 통신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상 징후 및 위급상황을 감지하고 응급상황 확인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적기에 안부를 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장년층의 안부까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고독사 예방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사업은 1인 장년층(50~64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후 개인정보동의서 작성과 앱 설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아울러 위기가구로 도움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포털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 '복지로' 도움 요청 검색으로도 가능하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시민들은 주위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주고 알려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뉴스-in

태풍 '찬투' 북상… 긴장모드 돌입

상하수도본부 태풍 대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제14호 태풍 '찬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동반하자 긴장 모드에 돌입.

상하수도본부는 14일 회의실에서 하수도분야 관련 건설공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및 태풍 대비 공공하수도 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집중호우시 공사현장 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점검 사항을 논의.

안우진 본부장은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과정에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북상중인 태풍 '찬투' 영향으로 13일 오후 2시 이후 제주기점 선박 운항이 통제돼 하우스감귤을 택배로 보내지 못해 애태우던 농가들이 14일 운항이 재개되자 일단 안도.

제주농협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운항을 14일 오전 재개해 15일 오전까지 네 차례 운항키로 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태.

농협 관계자는 "선박 운항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서울가락시장 경매도 코로나19 여파로 18일 새벽까지만 진행키로 하면서 추석 이후 증가할 하우스감귤 출하물량이 걱정"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단계적 학급당 학생 감축을"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요구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단계적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 마련을 촉구.

이 단체는 14일 논평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늘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 배치 방안'을 내놓았다"며 "결정을 환영하며, 제주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

이어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곳보다 먼저 모든 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학생배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 오은지기자

부 고

양찬식(늘푸른공인중개사 대표) 아버지 제주양공 두형(향년 88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14일 00시 0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1년 9월 15일(수요일)
▶발인일시 : 2021년 9월 16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 어음리 가족선영

부 인 이신화
아 들 양찬식 며느리 김행선
진식 이순례
현식 김은희
딸 양미자 사 위 하덕규

※ 연락처 : 양찬식 010-3696-2387
양미자 010-8878-6663
양현식 010-9969-1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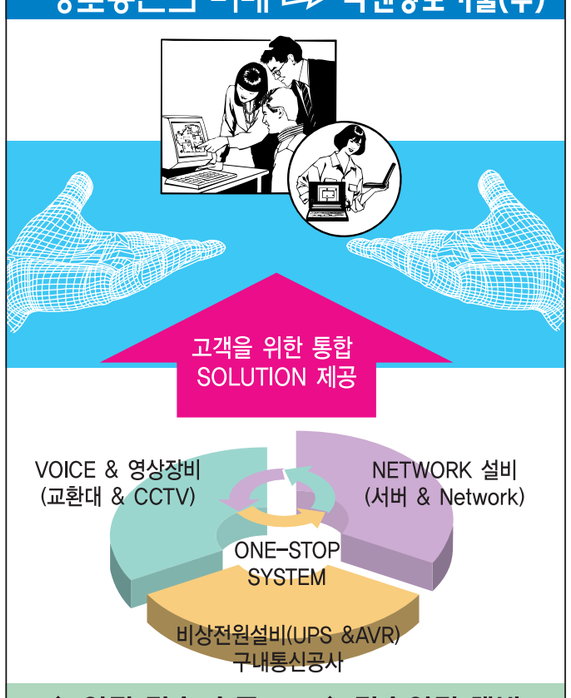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